

제2주제

지방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소진광

(경원대학교 교수)

지방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소진광 | 경원대학교 교수

I. 서론

집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지행태는 흔히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오고 있다.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확보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입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이 발생하고 이는 각각 도시문제와 낙후지역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지역격차는 궁극적으로 국가통합을 저해하여 막대한 정치비용을 수반한다. 과밀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낙후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조장, 촉진하여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부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과밀지역의 기업을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과 낙후지역에서의 경제활동 지원과 창업촉진이 그것이다. 과밀지역으로부터 낙후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정부의 정책은 개별 기업가의 공간선호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별 기업가의 공간선호는 단순히 기업가의 취향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윤창출 가능성을 포함한 기업환경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과밀지역에서의 이윤창출 가능성을 증가하는 기업환경을 낙후지역에 조성하거나 기존 입지에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윤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여야 기업은 이전할 것이다. 이 경우 과밀지역에 입지한 기업은 과밀로 인한 집적불경제 혹은 이전으로 인한 추가비용부담과 다른 지방 혹은 낙후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이윤 혹은 혜택을 비교하여 입지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입지이전은 단순히 '어디서'라는 장소의 선택이 아니라 생산요소의 결합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경제활동과 공간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경제활동이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

기도 하고 이미 형성된 공간에 의해 경제활동이 파생되기도 한다. 즉, 경제활동의 공간적 속성은 인구(노동력), 자본, 정보 및 의사결정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흐름현상(flow)으로 파악되는데 각각의 생산요소가 선호하는 흐름방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들 흐름의 주체는 한편 공간형성적(space forming)이고, 다른 한편 공간파생적(space contingent)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간질서를 만들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기존 공간질서에 의해 구속받기도 한다(Friedman, J., 1972). 이 경우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제인이라면 이미 조성된 공간에서의 집적이익을 추구하여 경제활동의 비용을 외부화¹⁾ 하려할 것이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입지정책은 낙후지역에 경제활동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러한 외부경제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산업단지 개발, 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사회간접자본 형성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한편 기업은 기존 입지가 이미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속하지만 그러한 지역에서의 집적경제수준을 능가하는 다른 지역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업이전을 꺼려할 것이다. 낙후지역의 경우 집적경제가 미미하여 공간파생적 기업유인정책은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또한 정부정책으로 건설된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나중에 입지하는 기업이 더 많은 외부효과를 얻게 되어 기업유치가 쉽지 않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노동력, 자본, 정보, 의사결정 등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외부효과의 장소적 특성을 경제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공간과 경제활동의 유형은 지역격차인식과 연계되어 있다.

지역간 경제격차는 경제활동과 경제공간과의 상호작용 결과이고,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은 개별 기업의 입지행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발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는 공간문제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어떠한 공간조건에서 가능한 경제활동의 내용과 규모를 분석해낼 수 있다면 그와 관련한 공간변수, 예를 들면 도로, 항만, 상하수도, 주택, 공업용지를 조합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새로운 내용, 규모를 유도해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미래 특정의 발전현

1) 외부화(externalization)란 남의 노력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경제적 이득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남이 지불한 비용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면 그러한 이득에 상응한 비용을 남에게 전가(외부화)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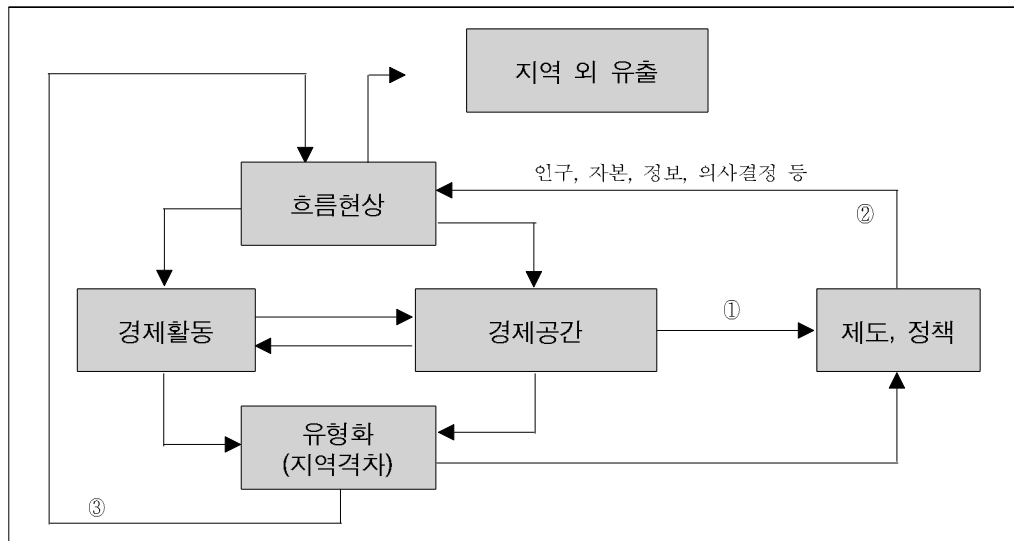
상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변수를 조작하는 정부정책은 과밀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과소지역 혹은 낙후지역에서의 외부효과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기업의 공간선택 행태와 한계를 설명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기업의 공간선택 행태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 기업이전 혹은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국가 혹은 지방정부에서 사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대기업을 입지이전 행태특성

1. 지역경제의 작동 체계

집적효과는 인구, 자본, 정보 및 의사결정과 같은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과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유동적 생산요소는 특정 공간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생산요소의 흐름현상이 일정 시점에서 특정의 유형, 즉 지역경제의 경관차이(지역격차)로 인지되고, 이것이 규범적 질서를 통해 투영될 때 문제점이 도출되며, 이를 개선 내지 완화, 혹은 극복하기 위해 제도와 연계될 때 이들 인구, 자본, 정보 및 의사결정의 흐름방향과 속도는 새로운 지역경제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즉, 경제변동과정과 경제활동패턴은 상호작용관계에 있다(Healey and Ilbery, 1990:3). <그림 1>은 이러한 지역경제의 작동체계를 도식한 것이다.



<그림 1> 지역경제의 작동체계와 지역격차

<그림 1>에서 ①의 과정은 직접적인 공간정책, 즉 토지이용계획, 산업단지의 조성,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계획 등을 나타내주고 있고, ②의 과정은 간접적인 공간정책으로 종종 산업부문정책 혹은 비공간정책(aspacial policy)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③은 제도권 밖의 비공식분야로서 경제활동의 구조적 틀인 사회체계의 탄력성과 관련되어 있다. ③의 과정은 통상 시장원리(market principle)에 의해 작동된다. <그림 1>에서 지역의 경제적 발전은 인구, 자본, 정보, 의사결정 등 경제활동에 유리한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역의 발전을 어느 특정 시점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 그 분석대상은 경제활동과 경제공간간의 상호작용으로 인지되는 '유형화'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과 속도를 나타내줄 뿐,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의 경제를 논할 때, 미래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과 현재의 경제력을 구분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지역격차는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어느 지역의 경쟁력은 미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에서 확인될 수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통해 결합하게 되는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 그리고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기업의 입지행태 특성

기업의 입지행태는 지역격차와 상호작용관계에 있다. 지역격차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 유동적 생산요소를 끌어들이 수 있는 입지인자의 공간분포 차이도 지역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한 원인이고 생산성이 높은 혁신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격차를 유발한다.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여 지역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 역시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 발생 확률을 높이며, 기술혁신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일찍이 이중환 선생(1690-1752)은 살만한 곳을 가리는데 있어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및 산수(山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리와 산수는 물리적 삶의 조건을, 생리는 경제 환경을, 그리고 인심은 오늘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속하는 인간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은 장소선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공통점은 모두 인간정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공간선택 논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기업이라고 해서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하여 공간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공간선택 요인은 물리적 조건, 토지, 노동력, 자본 등 생산요소, 시장, 기술, 정부정책, 삶의 질 및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업의 공간선택 동기는 우선 경제 환경의 네트워크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기업은 '투입-산출'과정에서 다른 기업과 연계하여 분야별로 독특한 생산체계(production system)를 이룬다. 특정 생산단위(공장)와 전, 후방으로 연관되기 마련인 기업은 그러한 산업연계에 따라 생산함수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공간선택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업이 선택 가능한 공간구조를 입지계층 측면, 생산체계 측면, 생산조직 측면에서 검토하고 총체적인 도시체계 관점에서 개별 기업의 공간선택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정책수단의 선택기준을 명확하게 해준다.

1) 입지계층과 기업의 공간선택

인구의 공간분포 집적정도에 따라 도시체계(urban system)가 달리 형성되듯이, 산업별 공간집적정도에 따라 개별 산업의 입지계층(locational stratum) 또한 달리 형성된다. 이러한 입지계층은 ①산업별로 독특한 공간필요조건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의 정착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 ②계획체계기업(planning system firm)에 의한 다지역, 다제품생산활동(multi-regional, multi-product production activity)의 산업연계(industrial linkage), 그리고 ③조립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subcontracting)을 통해 형성되게 된다.

첫째, 정착화 경제에 의한 입지계층은 총량적인 인구규모로 분석되는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와는 달리, 특정산업의 집적과 특정 공간의 필요조건을 연계시키려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정착화경제에 의한 입지계층은 도시체계와는 달리 산업별로 집적정도에 따라 다른 공간순위를 갖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계획체계기업들은 조직구성원리가 다중성을 띠고 있어서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Watts, 1987:58), 이 경우 기업측면에서의 기능별 우선순위에 따라 입지계층을 달리하게 된다.

둘째, 산업연계에 의한 입지계층은 생산 공정이 수직적으로 분리되고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생산조직과 생산체계가 산업기술공간화의 매개변수라면, 산업 연계(industrial linkage)는 이들 매개변수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도출되는 공간 상부구조(spatial superstructure)이다. Taylor와 Wood(1973)는 산업연계를 '제조업체계의 분리된 기능요소간 물자의 흐름, 정보의 교환 등을 포함하여 모든 조작적 접촉'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실에 있어서 기업이 산업 활동과 관련하여 갖는 연계(linkage)는 매우 복잡하다. 즉, 생산 활동을 통해 공장은 새로운 연계패턴을 형성할 수 있고, 또 기존 연계패턴에 의해 생산 활동이 구속받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산업연계는 제조업체계를 서로 묶어주는 연결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Bale, 1981:69).

한편 산업연계는 집합적으로 조직이 작동하는 공간을 정의해주는 조직 혹은 그 구성부분들의 모든 외부접촉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McDermott and Taylor, 1982:50). 따라서 산업연계는 입지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관계에 있으며, 산업입지패턴은 이러한 동태성의 한

단면으로 파악된다. 기술의 공간화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연계의 유형이 도출되어질 수 있다면 그들 각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기술유형이 대응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셋째, 하도급에 의한 입지계층은 대규모 조립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하도급은 산업조직(industrial organization)과 입지(location)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려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하도급 관계는 대규모 계획체계기업(planning system firm)을 시장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시장체계기업(market system firm)의 공간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혁신클러스터 구축은 이러한 기업군의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결합을 통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은 생산 공정의 일부가 다른 공장으로 이전되어 가는 산업연계의 특정 유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산업연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생산 활동의 분리정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하도급구조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Sheard(1983)는 일본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조직 및 입지측면에서 분석하는 가운데 이들 부품산업들이 자동차조립업체와의 관계에서 일종의 계층적 하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즉 첫 번째 계층의 기업들은 자동차 조립공장과 직접거래하게 되고 이러한 첫 번째 계층기업들과 재도급(sub-subcontracting)관계에 있는 보다 작은 규모의 두 번째 계층기업이 있고 또 세 번째 계층의 기업이 있는 방식으로 하도급관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게 되는데 일본의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하나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평균적으로 171개의 1차 계층 부품업체, 4,700여개의 2차 계층 부품업체, 그리고 31,600여개의 3차 계층 부품업체를 두고 있다 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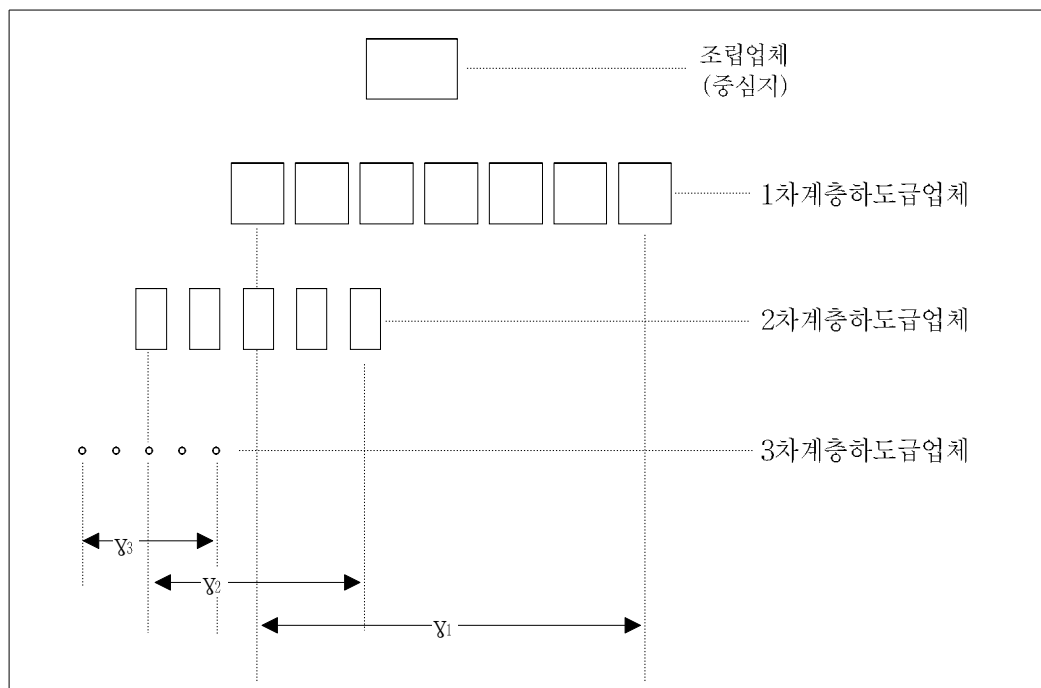
따라서 하도급에 의한 생산의 공간구조는 조립업체를 최고차위 중심기능으로 하여 이들과 후방 연계되어 있는 조립업체들이 저차위 중심기능을 이루면서 계층을 이루게 된다. 이들 계층적 공간구조의 특징은 조립업체를 중심으로 일종의 구심력에 의해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Scott, 1983:243).

2) 이들 하도급업체의 계층구조는 공장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1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는 평균적으로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2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그리고 3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는 3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계획체계의 기업과 시장체계의 기업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1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는 2차 계층 하도급업체에 대해 계획적, 체계적 속성을 지니게 되나 전방 연계되어 있는 조립업체에 대해서는 시장 체계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

<그림 2>는 이러한 계층적 하도급관계와 조립업체를 중심으로 한 입지계층의 공간구조와의 관계를 개념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γ_1 은 조립업체를 중심으로 1차 계층의 하도급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γ_2 는 1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이들에 후방연계되어 있는 2차 계층의 하도급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γ_3 는 2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이들에 후방연계되어 있는 3차 계층의 하도급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나타내준다.

이때 $\gamma_1 > \gamma_2 > \gamma_3$ 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저차위 계층 하도급업체일수록 공간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대규모 기업일수록 입지선택의 폭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즉 ‘투입-산출’과정에서 완제품조립과 관련한 생산 공정의 최종 수요적 제조업일수록 입지자율성이 증대되고 반대로 중간 수요적 제조업들은 이들과 전방연계되어 있는 기업의 입지에 의한 공간구속력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산업간 비교에 있어서 하도급 공간의 분산정도는 산업별 하도급관계의 규모 및 안정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도급관계의 규모가 크고 안정되어 있으면 하도급 공간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하도급관계가 일시적이고 규모가 작으면 하도급업체들이 그들과 전방연계되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Karaska, 1967: 109-22).



<그림 2> 계층적 하도급관계와 입지계층의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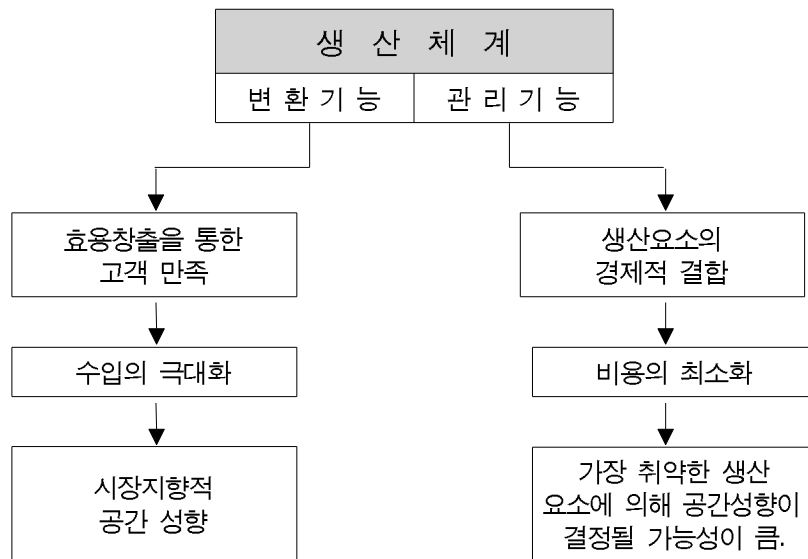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하도급은 시설규모, 작업의 성격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동과정(labour process)의 일부를 외부화할 때 계층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라 산업별로 독특한 입지계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입지계층을 따라 고차위 하도급업체는 저차위 하도급업체보다 공간선택의 폭이 넓고, 따라서 조직규모가 크며 최종 수요적 생산 활동에 근접하는 경향을 띤다.

2) 생산체계와 기업의 공간선택

생산체계(production system)의 공간적 속성은 투입요소의 경제적 조합과 관련한 비용최소화의 경향과 산출의 관리면에서 수입극대화의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입지이론에서 보면 수입극대화의 경향은 시장 지향적 산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이고 비용최소화의 경향은 그 밖의 모든 산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생산체계(production system)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품종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체계를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와 소품종 대량 생산체계로 나눌 때 전자는 고객의 만족을 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지향적인 공간성향을 보일 것이고 소품종 대량 생산체계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인자는 생산비용의 최소화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반 생산요소의 구득가능성 및 결합방식에 따라 복잡한 공간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생산규격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체계를 수주생산체계와 계획생산체계로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주 생산의 경우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가 기업의 수입을 결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지향적인 공간성향을 띠게 할 것이고, 계획생산의 경우에는 안정된 시장(혹은 상당기간 일정규모의 시장)으로 인해 '투입-산출'의 변환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윤극대화라는 기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 결정인자인가에 따라 복잡한 공간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림 3>은 생산체계가 갖는 기능과 생산 활동별로 기대되는 생산 활동의 공간성향을 개념화한 것이다.



<그림 3> 생산체계의 기능별 공간성향

그러나 생산체계가 근본적으로 효용의 창출을 통해 생산과정에서의 경제성(비용의 최소화)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양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성향은 기업의 전략에 따라 분명해 지리라는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변환기능에서의 공장설비 생산성향상과 연계되어 있지만 관리기능 측면에서의 생산요소 배합비율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화전략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합리화전략은 생산투입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의 결정인자는 생산요소 중 가장 취약한 인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3) 생산조직 유형별 기업의 공간선택

생산조직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있을 수 있다(Chase and Aquilano, 1977). 첫째는 어떤 생산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조직유형이 결정되고, 둘째는 작업의 흐름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또는 기술적인 관련성에 따라서 조직내의 활동을 할당할 수 있으며, 셋째는 어떤 특정 활동이 관리자의 업무수행에 매우 밀접하게 관계될 때 이 활동을 조직설계에서 특별히 할당하는 경우가 있고(예컨대, R&D 활동이 중요한 TV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 부서를 제조부장 밑에

두는 경우임), 넷째는 주요 고객의 유치가 매우 중요할 경우 이 주요한 거래처의 수요요건에 맞도록 생산할 수 있는 공장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임가공 형태의 부품업체의 생산조직이 이에 해당), 다섯째 내부통제의 관점에서 조직 내 권한의 균형적 할당을 고려한 조직설계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총괄적 시스템사고에 의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된 기능을 행렬식조직(matrix organization)으로 만들어 내적 유대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생산조직은 이중 특정요소가 지배적인 형태로 특징지워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이들 생산조직의 입지결정과정에서 그러한 특정요소의 장소적 의미가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 활동의 조직특성이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Galbraith(1967)는 계획체계기업(planning system firms)과 시장체계기업(market system firms)을 구분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기업은 그들 자체의 분명한 공간패턴을 창출하고, 고용기회의 지리적 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은 경제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지역 간 노동시장의 질과 양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기업은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해가야 하고, 자체 기능을 지역 간 전환할 수도 없으며(특히 단일공장 기업인 경우), 그 성장기복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폭이 미미하다. 특히 하나의 조립공장에 상당수의 부품공장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 조립공장의 의사결정은 그에 후방연계되어 있는 부품산업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 계획체계기업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조직되어 있으며 생산제품도 다양하고 기업자체의 공간조직을 형성하고 있어서 자체의 입지계층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계획체계기업들은 기능의 공간분업은 물론 다양한 제품을 여러 지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공간선택의 폭이 크고 생산체계를 보다 유연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간 공간전환은 물론 지역 간 활동전환이 가능하여, 시장체계기업과는 달리 시장요인에 의해 밀리거나 끌리지 않고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시장체계기업과 계획체계기업의 구분은 단순히 조직규모를 기준으로 구분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산업별 시장규모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체계기업은 기형성된 시장구조에 자신의 형태를 적응시키는 조직특성을 보일 것이고, 계획체계기업은 스스로 시장구조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직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체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다공장기업들은 자체공장의 공간계층을 통해 생산공정기술의 누적과정(filter-down process)을 보일 수 있는 반면, 시장체계공장의 경우 그만큼 새로운 생산공정도입이 어려워져 기계설비나 생산설비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획체계기업들은 나름대로 기업특성에 맞는 핵심지역을 형성하여 주위에 시장체계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입지 유인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새로운 생산공정기술의 공간화는 주로 계획체계기업들의 공간분업으로 구체화되고, 이 때 혁신의 전파는 계획체계기업자체에 독특한 입지계층(혹은 자체의 공간계층구조)에 의한 확산에 의해 주도되며, 이를 중심으로 시장체계기업들에 의한 전염확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새로운 산업기술은 도시화 경제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도시규모분포의 계층확산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착화경제의 관점에서 계획체계기업에 의해 형성된 산업별 입지계층에 따른 공간확산과정에 의해서 전파되게 된다.

계획체계기업들은 그들 다양한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그들 자체에 특유한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고, 조직구성원리가 다중구조(multi-divisional structure)의 특성을 하고 있어서 기능별 조직부서, 지역별 조직부서와 함께 별도의 연구, 개발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Watts, 1987:58). 이에 비해 시장체계기업들은 그들과 전방연계되어 있는 주거래처를 관리, 연계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시장체계기업과 계획체계 기업간의 상호작용은 하도급관계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조직의 특성이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거는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외부요인을 생산 활동에 내부화하는 과정이 기업의 조직에 따라 다르다는데 착안하고 있다. 또한 기업조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구조와 입지변화와의 관계도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문제는 산업기술을 수용하고 또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함수를 어떤 변수로 정의하느냐하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조직은 관련분야를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대기업의 조직은 영토분할(territorial divisions), 기능결합(functional integration) 그리고 생산제품이나 서비스별 관장업무(product/service divisions)를 혼합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 구성 원리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체 독특한 공간구조를 형성케 해 준다. 따라서 기업조

직의 규모에 관한 연구는 생산 활동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Averitt(1968)도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중심지기업(*centre firms*)과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주변부기업(*periphery firms*)을 구분하고 있고, Holland(1976)는 산업전반적인 체제를 소규모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세경제분야(*micro-economic sector*)와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중간경제분야(*meso-economic sector*)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Taylor와 Thrift(1983)도 대기업분야(*corporate sector*)와 소기업분야(*smaller firms sector*)를 구분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대체로 기업환경과 기업들의 상호 작용과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이 대규모 공간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서 공간파생적인 면보다는 공간형성적인 측면이 강조될 경우 계획체계기업, 중심지기업으로 불릴 수 있고 이들 기업의 활동은 중간경제분야, 대기업분야를 그 무대로 하고 있다. 반대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미 형성된 공간구조에 의해 영향 받는 폭이 클 경우 그러한 기업은 시장체계기업, 주변부 기업의 특성을 보이고, 그 활동은 미세경제분야, 소기업분야를 주 무대로 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 및 산업조직과 경제활동의 입지와 관계는 어느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산업이 입지해 있는 장소적 특성은 이들 기업 및 산업이 조직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거리에 있는 분공장은 보다 가까이 근접해 있는 분공장에 비해 보다 대형화되고 자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직적 통합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촉진될 수 있다. 즉 Scott(1987)는 주변지역이나 제3세계에 입지해 있는 분공장이 핵심지역, 핵심국가에 입지해 있는 분공장보다 수직적으로 통합되게 되는 경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조직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은 소규모 기업의 자본시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후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분포와 행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인에서의 구속력이 약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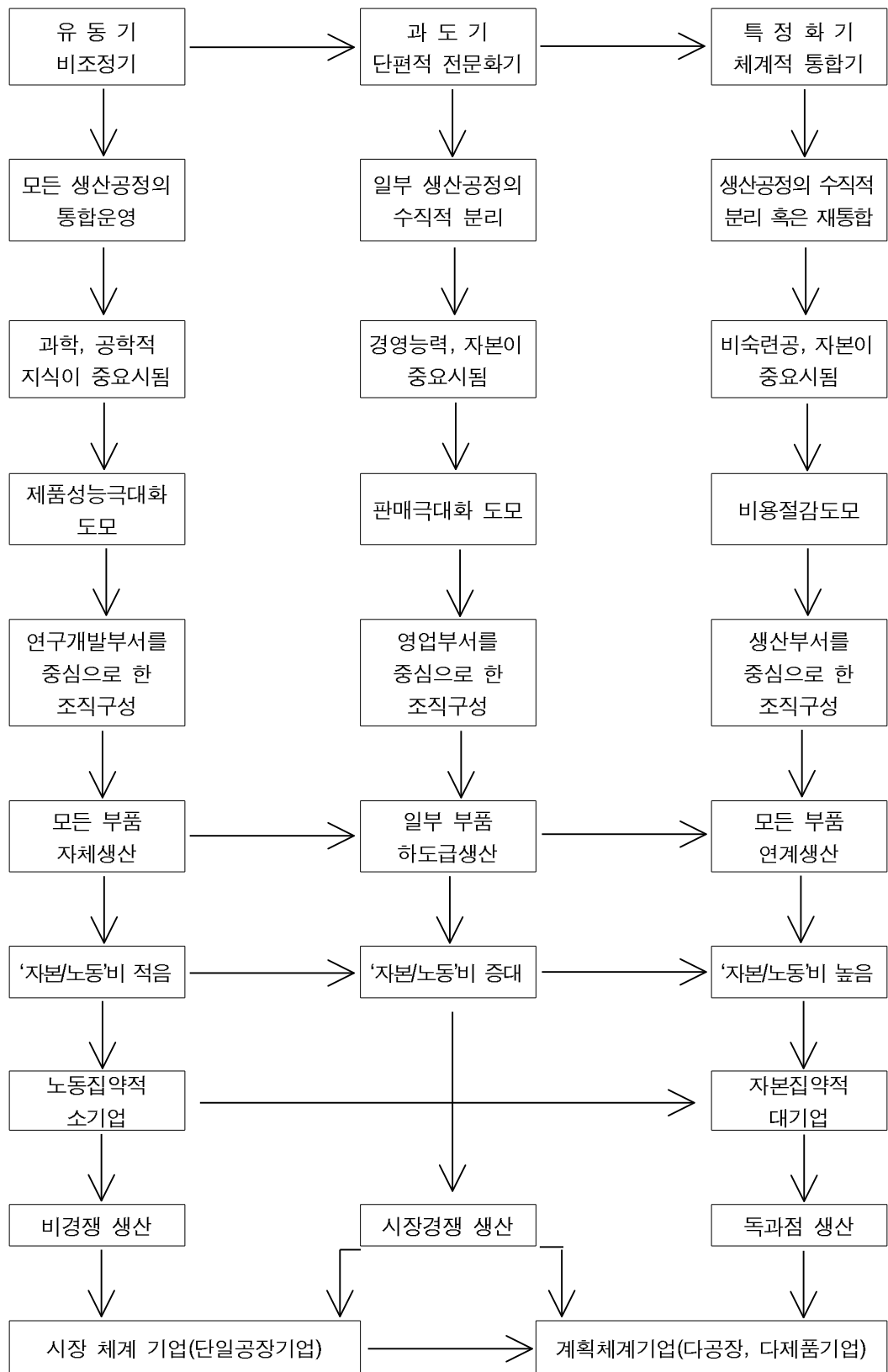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소규모기업에 비해 입지자유가 크다. 그리고 물자연계(*material linkage*)와 서비스 연계(*service linkage*)는 다공장기업에 속해 있는 공장에서 보다 장거리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다공장기업의

공장들은 단일 공장보다 지역화 경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JIT(동기 생산방식)체계의 도입 및 수직적 분리현상으로 인한 산업연계체계의 변화는 후방연계 기업들로 하여금 공간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즉 JIT체계가 능률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하도급업체가 시장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완성품 조립업체 가까이 입지하여야 한다.

한편, 공간집중화의 경향은 수직적 분리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cott(1987:215-231)는 수직적 분리와 경제활동의 집적은 상호 보완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수직적 분리현상은 외부거래량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거래규모가 크고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들은 어느 한 장소에 모여들게 된다. 그 결과 그러한 집적지에 입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외부경제는 또 다시 수직적 분리현상을 자극하여 많은 기업들을 유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직적 분리현상이 증대되고 유연생산방식이 도입되게 되면 새로운 산업 공간(new industrial spaces)이 출현할 수 있다(Scott, 1988:171-86). 그러나 유연적 생산방식과 수직적 분리현상은 공간집중 뿐만 아니라 공간분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은 기술변수의 주체, 즉 생산조직의 특성을 간과한데서 비롯된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그 생산조직특성에 따라 산업기술을 수용, 채택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생산과정을 통해 독특한 생산 공간(production space)을 형성하는 '기술-공간'화의 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기술발달에 따른 기업의 생산조직변화를 예시한 것이다. 기술발달은 혁신단계에서의 유동기로부터 일부 전문화를 통해 과도기를 거쳐 모든 기술이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특정화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생산 공정의 통합, 수직적 분리 및 재통합의 현상이 나타나고, 생산조직은 연구개발 중심, 영업부서 중심 및 생산부서 중심으로 변화한다.

결국 기술발달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본/노동'비가 낮은 노동집약적 소기업이, 그리고 특정화기에는 '자본/노동'비가 높은 자본집약적 대기업이 출현하게 된다. 노동집약적 소기업은 전방연계 기업(시장)에 종속되기 쉬워 시장체계기업으로, 자본집약적 대기업은 후방연관기업(대부분 부품공장)의 공간선택에 영향을 미쳐 계획체계기업으로 구분된다.



<그림 4> 산업기술발달과 생산조직 분기현상

3.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대기업 입지 제약

흔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과밀현상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과밀현상의 판단기준은 항상 균등한 국토공간분포였다.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균등분포를 상정하고 그에 비해 수도권은 면적대비 인구나 각종 시설이 과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분포는 균등할 수도 균등해서도 곤란하다. 균등한 공간분포 상태에서는 각종 시설의 유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차위 서비스 기능을 공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간집적은 필연적이며, 공간집적으로 인해 또 다른 경제활동을 창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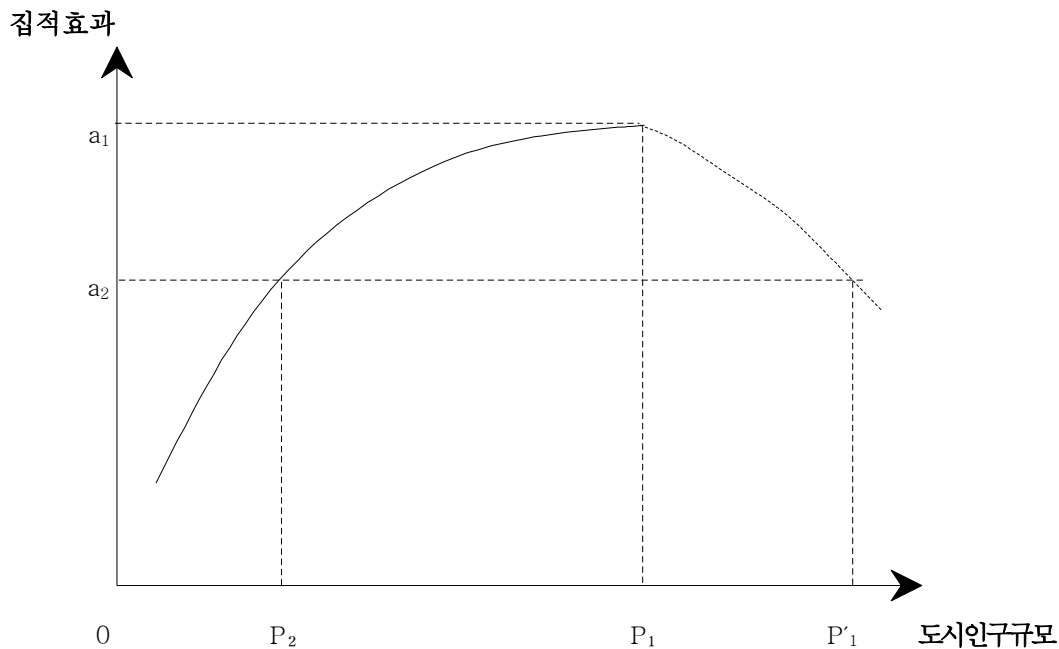
총체적인 집적효과는 인구집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라 한다. 도시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시장도 커지고, 소비시장도 형성되어 기업환경은 개선된다. 또한 도시인구가 늘어나면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서고 고차위 서비스 기능이 유입되어 생산 환경이 개선된다. 또한 도시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다양성도 증대되어 혁신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새로운 논리가 유입되기 쉽다. 이와 같이 도시인구가 증대되면서 조성되는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은 개별 기업에게 외부효과를 제공한다. 즉 대도시에서는 투자자본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이 발전하여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에 인구와 시설이 과도하게 집적되다 보면 주택, 상·하수도, 교통 등 각종 공간문제가 발생하고 도시환경이 오염된다. 과밀 도시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집적불경제라 한다. 따라서 도시의 인구규모는 집적효과와 집적불경제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인구규모가 늘어나면 집적효과도 증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도시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증대된다. 결국 도시인구가 늘어나면 집적효과와 집적불경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셈이다. 그러나 도시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로 늘어날 경우엔 집적효과가 집적불경제를 압도하여 전체적으로 집적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 규모를 능가하는 도시인구의 증가는 집적불경제를 급속하게 증대하여 전체적으로도 집적불경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도시 전체

적으로 집적불경제가 나타나면 인구와 각종 시설이 도시를 빠져나오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집적불경제로 인한 추가비용부담을 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이전행태는 국가 전체적인 도시체계 혹은 인접 국가의 경제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림 5>는 국가도시체계상에서 집적불경제와 기업의 공간선택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으로 나타낸 집적효과 곡선은 인구규모가 늘어나면서 집적효과가 집적불경제를 능가하는 범위까지 나타난다. <그림 5>에서 도시인구규모가 P_1 에 이르면 집적효과와 집적으로 인한 불경제가 같게 되어 기업이 더 이상의 총체적 집적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미 인구규모 P_1 의 도시에 입지해 있던 기업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총체적인 집적불경제를 느끼게 되지만 차하위 도시가 인구규모 P_2 수준인 도시체계상에서 P_2 인구규모의 도시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즉 P_1 인구규모의 도시에서 P_2 인구규모의 도시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a_1 - a_2)$ 만큼의 집적효과를 포기하여야 한다.

만약 P_1 의 도시인구규모가 P'_1 수준으로 증가하여 P_2 인구규모의 도시에 누릴 수 있는 집적효과와 같게 된다면 기업은 P'_1 인구규모의 도시에 남든지 아니면 P_2 인구규모의 도시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지도 일종의 관성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상당한 집적효과의 순증을 확신하지 않는 한 기업은 이전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총체적으로 집적불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과밀도시에서도 기업은 빠져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고 P_2 인구규모의 도시에 입지해 있는 기업은 P_1 인구규모의 도시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P'_1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도시로의 이전을 통해 집적효과의 순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P_1 인구규모의 도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서 집적불경제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된다. 즉 국토공간상에서 수도권에서의 집적효과를 대체할 만한 집적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그 만큼 어렵다.



<그림 5> 집적불경제와 기업의 공간선택한계

Ⅲ. 지방 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1. 지방 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하려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

기업의 공간선택(입지)은 전·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체계, 관련 산업의 기술발달 단계 및 생산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대기업을 많은 후방연관산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특히 대기업을 독자적으로 공간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전·후방 생산연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서 후방연관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속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러한 기업을 통해 지역이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하려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업종이 지역특성과 어울리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산업별로 기술발달 단계가 다르고, 기술발달 단계별로 지방중소도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술발달은 생산성을 증대시켜주지만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게 하여 고용창출에는 역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가 무조건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란 쉽지 않다.

둘째, 지방 중소도시의 기업의 생산체제와 생산조직을 고려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지방 중소도시가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 중소도시의 우선 기업 활동에 대하여 외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착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의 관점에서 특정 산업에 필요한 생산체제와 생산조직을 연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면 지방 중소도시도 산업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중소도시가 기업의 생산체제와 생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경제활동 기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지방 중소도시의 주변 다른 도시와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독자적으로 완결된 경제공간을 이루기가 어렵다. 집적경제 측면에서 다른 대도시와 비교 열세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인접 다른 도시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대기업을 필요로 하는 입지인자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 중소도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생산체제 및 생산조직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의 생산체제와 생산조직은 하나의 국가 단위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세계화는 경제활동 측면에서 국경을 초월한 생산요소의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국경을 전제로 한 소위 풍선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셈이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도 이제는 국내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의 환경가치를 고려하여 기업을 유치하여야 한다. 뒤쳐져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앞선 자가 치룬 고가의 시행착오 비용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환경은 더 이상 경제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다. 이제는 환경가치가 미래의 경제활

동을 유인하고 조율할 수 있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은 고도의 기술력을 소유한 노동력을 끌어들이고 자본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요소이다.

2. 지방 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기업은 생산요소의 집합체이다. 생산요소는 공간을 떠다니는 유동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부동산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일정 장소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을 조작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즉,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이고 위험부담을 줄여야 한다. 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높게 지불하고 노동력의 원천인 사람이 선호하는 삶의 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 밖에 생산요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고 생산요소끼리의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경영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경제활동과 환경과의 조화가 새로운 생산요소 유인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본의 이자율은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어서 어느 도시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본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생산요소와의 혼합(mix)과 조화(harmony)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이다. 결국 자본은 다양한 기회와 안정성에 따라 이동한다. 노동력의 흐름방향과 흐름속도도 새로운 요인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 노동력은 다른 생산요소와는 달리 경제 외적인 요인과 결합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노동력의 이동은 가족 단위의 생활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추구하여 결정된다. 자녀교육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가족생활에 편리한 시설과 사회적 분위기 등 '삶의 질'이 다른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술력 또한 자본의 함수이고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요소이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흐름방향과 속도를 분석하면 지방 중소도시가 기업을 유치하려 할 때 불리한 조건과 유리한 조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도시는 투자기회가 적은 반면 토지이용의 탄력성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의

폐해는 줄이고 유리한 조건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모든 지방이 소망하는 바다. 또한 기업활동이 무조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 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지계층을 통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저렴한 경제공간(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대기업을 계획체계기업으로서 많은 후방연관기업을 유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대기업을 대부분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하도급망을 형성한다. 특히 생산공정의 수직적 분리와 수평적 결합력은 산업별 독특한 입지계층을 형성하여 광범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대기업을 입지한 장소는 단순히 생산공간만이 아니라 동시에 소비 공간이기도 하다. 즉, 소비자로서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요소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대규모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을 경우 지대(rent)는 기업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대기업을 생산체계에 있어서 관리기능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 중소도시도 저렴한 공장부지를 형성, 공급하면 대기업을 끌어들이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을 많은 후방연관기업과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형성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기업 자체에 필요한 지역환경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전반에 필요한 공간구조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유치될 수 있다.

둘째, 생산체계의 관점에서 변환기능 위주의 기업보다는 관리기능 위주의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관리기능은 생산요소끼리의 결합비율, 결합방식, 결합시기 등을 조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인력이 필요한 변환기능은 지방 중소도시 거주 노동력이 감당하기엔 버겁다. 관리기능 위주의 대기업을 수도권 중심지와 지방 중소도시의 차별성을 활용하여 공정과정을 공간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서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즉, 대기업을 수직적 분리와 수평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장점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지방 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역의 기업환경, 인접 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생산조직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네트

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집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지방 중소도시는 정보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기업 종사자들의 자녀교육 및 문화활동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여건은 어느 한 도시가 자체 노력으로 구축하기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인접 지역과의 기능분담 및 상호협력 체계는 지방 중소도시의 집적이익을 증대시켜 마치 대도시에서의 집적효과와 같은 역할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생산단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단위이기도 하다. 즉, 기업은 재화를 생산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산요소, 공공서비스를 소비하기도 한다. 소비자로서의 기업은 자녀교육여건,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과 프로그램, 환경적 건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업은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구성원끼리의 신뢰, 연결망(network),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금융자본, 물리적 자본(도로, 공원, 기반 시설 등) 등 전통적인 자본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생산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는 신뢰, 참여, 연결망, 제도준수 수준 및 남을 배려하는 이타주의로 요약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지방 중소도시와 수도권 대도시간의 전통적인 자본격차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 대도시와 경쟁할만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오혁, 2005, 참여정부의 신지역주의적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4) pp. 1-20.
- 김형국, 1983,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 박영사.
- 박삼옥, 1992, 영국의 첨단기술 산업정책과 지역정책, 제1회, 지역연구 학술발표회 자료, 지역종합연구소.
- _____, 1989, 첨단기술산업입지와 지역경제발전, 지역연구 제5권 제2호.
- 박영철, 2005,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산업입지개발전략 연구, 사회과학연구, 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제14집, pp. 203-228.
- 소진광, 2006, 지역균형발전 정책대상으로서의 지역격차인식과 개별 기업의 공간선택 한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4) pp.1-24.
- _____, 2005,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박영사.
- _____, 1998, 정보화에 따른 제조업 입지변화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pp. 47-61.
- _____, 1994, 기술변화가 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개념적 틀'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10(1). pp. 19-37.
- _____, 1991, 산업기술의 공간화과정 연구, 지방행정연구 6(3). pp. 103-129.
- Abernathy, W. J. and Utterback, J. M., 1978, Patterns of Industrial Innovation, Technology Review, June/July.
- Acs, Zoltan J., 2002, Innovation and the Growth of Cities, Edward Elgar.
- Auty, R. M., 1984, "The Product Life Cycle and the Location of the Global Petrochemical Industry After the Second Oil Shock," Economic Geography, Vol.60. No.4.
- Averitt, R. T., 1968, The Dual economy : the dynamics of American Industry, New York : Norton.

- Bale, John., 1981, *The Loc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 An Introductory Approach*, 2nd ed. Edinburgh : Oliver & Boyd.
- Chase, R. and N. J., 1977, *Aquilano,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Revised ed., by Richard D, Irwin Inc.
- Friedman, J., 1972, "The General Theory of Polarized Development" in Hansen,N.,(ed.), *Growth Center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 Free Press.
- Gold, John R., 1980,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Geograph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Halpern, David., 2005, *Social Capital*, Polity.
- Healey, Micheal J. and Ilbery, Brain W., 1990, *Location and Change : Perspectives on Economic Geograph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Holland, S., 1976, *Capital versus the regions*, London : Macmillan.
- Karaska, G. J., 1967, "The Spatial Impacts of Defense-Space Procurement: An Analysis of Subcontracting Patters in the United States," *Papers of the Peace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Vol.8.
- Krumme, G., and Hayter, R., 1975, "Implications of Corporate Strategies and Product Cycle Adjustments for Regional Employment Changes" in Lyndhurst Collins and David F. Walker(eds), *Locational Dynamics of Manufacturing Activi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Kuznets, Simon., 1966, *Modern Economic Grow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cCann, Philip., 2001, *Urban and Region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McDermott, Philip and Taylor, Michael, 1982,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ca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menner, R. W., 1982, Making business location decisions, New Jersey : Prentice-Hall.

Schumpeter, J. A., 1939, Business Cycles, New York : McGraw Hill.

SCIG, 1998, Abstracts: Social Capital Conference(April 20-22, 1998). Kellogg Cen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Sheard, P., 1983, "Auto-production systems in Japan: some organizational and locational features",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Vol.21. , 1983,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gic of Intrametropolitan location, I:Theoretical considerations," Economic Geography, Vol.59. , 1983,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logic of intra-metropolitan locaion, II:A case study of the printed circuits industry in the Greater Los Angeles region," Economic Geography, Vol. 59. , 1983, "Location and Linkage Systems : a survey and reassessment," Annals of Regional Science, Vol.17. , 1984,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logic of intra-metropolitan location, III:A case study of the women's dress industry in the Greater Los Angeles region," Economic Geography, Vol.60. , 1987,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cation : division of labour, the firm, and spatial process," Economic Geography, Vol.63.

Scott, A. J., 1988, "Flexible production systems and regional development : the rise of new industrial spaces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12. , 1988,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cation : Labour, the Firm and Spatial Process," Economic Geography, Vol.62, No.3.

Taylor, M. J. and P. J. Wood, 1973, "Industrial linkage and local agglomeration in the West Midlands metal industri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Taylor, M. J. & N., 1983, Thrift, "Business Organization, Segmentation and Location", Regional Studies, Vol.17.

Tewdwr-Jones, Mark., 2002, The Planning Polity: Planning, Government and the Policy Process, The RTPI Library Series, Routledge.

Utterback, J. M. and Abernathy, W. J., 1975, "A Dynamic Model of Process and Product Innovation" OMEG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Vol.3. No.6.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80.

Watts, H. D., 1987, Industrial Geography, Harlow :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